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농어촌버스

회전교차로 10월 완공

부안군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교통흐름 개선으로 시간 절약 및 안전 확보,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환경 개선 효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만족하는 교통 환경 조성 등이 기대된다.

군은 현재 총사업비 7억 3000만원을 투입해 부안 농어촌버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5차 1차로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해 지역 주민 및 탐방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안 농어촌버스 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혼잡구간이었으나 오는 10월 5차 1차로형 회전교차로 완공시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구절초 축제 등
맛아 위생 수저집 지원

정읍시가 구절초 꽃축제와 내장산 단풍철을 앞두고 관광객 맛을 위해 위생 수저집을 배포한다.

시는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깨끗한 식사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음식점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맛집, 모범음식점, 대표음식전문점 등 지역 우수음식점 121개소와 내장산 경내 상시 영업 업소 19개소 등 총 140개 업소다. 배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구절초 축제를 대비해 22일부터 5일간 우수음식점을 중심으로, 2차는 10월 단풍철에 맞춰 내장산 경내 영업 업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찾는 계절인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유산청 공모 5개 분야 선정

고창군, 국비 포함 총 2억8600만원 사업비 확보...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고창군이 2026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총 5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등이다.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관련, 고창농악을 주제로 공연, 교육, 체험, 숙박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상설국악 공연, '농악 사계절 굿스테이', '상생 X재생 프로젝트', '생생 퍼레이드'

등을 선보인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과 관련, 국가민속유산 신재효 고택을 활용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 전통과 흥, 흥보가의 울림'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판소리 마스터클래스,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등 지역성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천년의 숨결 선운사)과 관련, 선운사의 자연과 역사자원을 활용에 인경체험, 천연염색, 인문학 강의, 영산전 벽화 그리기, 동백 숲 보호 활동 등 치유·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로 선정된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고창농악, 미래를 같이)'과 관련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단 따라 보물찾기, 바울 굿아 학교가자, 나의 소고·나의 춤 만들기, '꿈꾸는 당산나무' 등으로 학생들이 농악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이어 신규 선정된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무장음성 칠거리당산 용당기놀이)과 관련, 용당기놀이는 칠월칠석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 민속놀이로,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바다와 노을’ ... 부안 곰소젓갈축제 성료

소비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여’

젓갈의 명산지 부안 곰소에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곰소젓갈센터 앞 특설 행사장과 곰소염전 일원에서 ‘바다와 노을 그리고 맛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4만여 군민과 관광객이 부안 곰소젓갈축제장을 방문했다.

개막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 의원, 군 의원, 사회단체장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곰소젓갈을 상징하고, 함께 여는 곰소의 미래를 상징하는 “항아리의 비밀” 개막

퍼포먼스에 내빈과 전)젓갈협회장이 참석하여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또한 주 메인행사는 곰소젓갈 비빔밥 나눔행사, 곰소젓갈 요리 런칭쇼, 특별행사는 서울호남항우회 총연합회 고향방문행사 공연행사는 100인의 난타, 부안 예술인 한마당 복지 TV방송, 먹거리행사는 젓갈무료 시식, 한돈 무료시식, 허브숯과 소금빵 나눔, 향토 먹거리 그리고 체험·상설행사는 전국 옷놀이대회, 가족대항 도전 골든벨, 왕새우잡기 체험, 업사이클링 공예체험 등 흥미로운 체험행사와 더불어 야간행사인 EDM과 4인조밴드가 함께하는 곰박축제로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밤까지 이어갔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젓갈전국가요제, 젓갈비빔밥 퍼포먼스, 어린이 전국댄스페스티벌, 전국꽃놀이 대회, 폐막행사로 젓갈 화합한바당을 끝으로 축제의 막을 내렸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민주 부안지역위, 당정 협의회 개최

지역 핵심현안 공유 · 국가예산 확보 논의

부안군은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와 지난 19일 진서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부안군의 핵심현안인 '해상풍력 연계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및 하반기 공모사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원택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군의장과 군의원, 김정기·김습지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안군은 올해 말 예정된 '새만금기 본계획 재수립 결정'을 앞두고 그간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지역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10월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안군 핵심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달하다리, 시민 · 관광객 명소로

정읍시, 정읍 9경 벽화 · LED 조명 더해 새로운 문화공간

정읍천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읍시는 최근 달하다리 교대 벽체를 활용해 '정읍 9경' 가운데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사공원과 달빛사당숲,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무성사원, 용산호 등 6곳을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하고 LED 조명을 보강 설치하며 산책로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콘크리트로 마감돼 단조롭게 보이던 다리 벽체는 정읍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낮에는 정읍의 대표 명소를 담은 벽화가 산책객들의 눈길을 끌고, 밤에는 한층 밝아진 조명이 어두운 길을 밝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벽화는 정읍의 아름다운 경관



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보는 즐거움을 더했고, 다리 하부에 설치된 LED 조명은 산책로를 환히 밝혀 정읍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달하다리 벽화와 경관조명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정읍의 매력을 알리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 명칭 뿌리 우물 보전 · 정비 나섰다

정읍시가 지역 명칭의 근원이자 생 활사적 가치를 간직한 전통 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 정비한다.

시는 '우물 정(井), 고을 읍(邑)'이라는 지역 명칭의 상징을 지켜내고 향토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9월 '정읍시 우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300여 개의 우물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보존 · 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입암면 봉암마을 등 5개소로 △봉암마을 우물 지붕 설치 △조소마을 우물 덮개 교체 △상록마을 우물 주변 조경 정비 △현암 · 표천마을 우물 구조물 보강 등 정비가 진행된다. 시는 각 우물에 안내판을

설치해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우물을 보존해 생활사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우물을 상징적인 향토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과 문화를 담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물은 지역 명칭의 뿌리이자 주민 생활과 문화를 담아낸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정읍의 전통과 향토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 민생회복 쿠폰 동시 지급

고창군이 10월 31일까지 '군민활력지원금' 20만원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의 동시 지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이 지원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9월15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단,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최소 1

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